

## 【P3-32】

## 오디추출물의 항응고 및 항염증작용

홍정희\*, 최정화<sup>1</sup>, 박금순<sup>2</sup>, 최경호, 최상원, 이순재대구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, 진주국제대학교 식품과학부<sup>1</sup>,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환경학과<sup>2</sup>

최근 급격한 경제성장, 식생활의 서구화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암, 동맥경화, 고혈압, 심장질환, 뇌질환 및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·치료할 수 있는 대체의학으로서 천연물 유래의 새로운 생리활성물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.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이들 물질을 검색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, 특히 항암, 항응고, 항염증 및 항노화 활성을 지니고 있는 천연 항산화물질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. 따라서 본 연구는 오디 재배 지역별(영천, 상주) 오디 메탄올추출물 및 Diaion HP-20 칼럼 분획물들(10%, 20%, 40% 및 80% MeOH)의 항응고 및 항염증활성을 측정하였다. 재배 지역별 오디메탄올추출물의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(aPTT)은 상주오디추출물의 응고시간이 다소 지연되었으며, 0.1 mg/ml 농도에서 가장 높은 응고 지연 시간을 나타내었다. 오디 메탄올 분획물 중 80% 메탄올분획이 1.0 mg/ml 농도에서 대조군보다 258% 증가되어 가장 강한 항응고 활성을 나타내었다. 또한, 오디추출물의 thrombin times(TT)는 재배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, 분획물 중 10% 메탄올분획물이 0.5 mg/ml 농도에서 대조군보다 29% 증가되어, 가장 높은 응고 지연 시간을 나타내었다. 한편, 오디추출물의 soybean lipoxygenase(SLO)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지역별로 영천 오디와 상주 오디 모두 각각 60% 및 52%의 SLO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. 다음, 오디 메탄올분획물 중 40% 메탄올분획물이 55%의 가장 강한 SLO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. 결론적으로 오디추출물은 항응고 및 항염증 효과가 우수하여 성인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식품개발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